지인이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어땠어요? 잘 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간략히 적어봐주세요.

사실 원래 it융합학부에 진학하기 전 나의 목표는 심리학과에 진학하여 심리 상담가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닥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실 뭘 좋아하는 지도 모르겠다.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현재 내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들어도 내가 해결 방안을 줄 수 없을 경우엔 무력감을 느끼며 들어주기 싫어하는 것 같다. 사실 내가 힘들 땐 옆의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좋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부터 난다.

학창시절 때 나는 엄마의 유일한 말벗이었는데, 엄마는 깊은 속내까지 나에게 다 토로하셨다. 매일 몇 시간씩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고, 아파했다. 그런 게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해야 할 것도 많은 내가 같은 내용의 말들을 자주 들어준다는 게 피로했다. 나도 힘들었고, 나 좀 알아달라 울었다. 그냥 그땐 다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잘 들어주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나라면 그렇게까진 못 할 것 같다. 엄마는 둘째딸인 나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내가 무너지는 걸 보실 때 엄청 힘드셨다고 한다.

동생의 교우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새벽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 주었다. 동생은 언니덕에 많이 편안해졌다고, 고맙다고 말했다.

사실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조언해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언이 때에 따라서는 좋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힘들 때의 이야기인데, 나는 그들에게 전혀 조언을 바라지 않았고, 나의 힘듦을 알아달라고 얘기했으나 그들은 그들의 얘기를 먼저 하기 바빴다. 날 위한 걸까.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는 적절한 경청과 적절한 침묵이 필요한 것 같다.